

미야마 제 2 포대 유적지

이곳은 미야마 제 2 포대가 있던 장소입니다. 오사카 만으로 접근하는 세력을 전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890 년대에 미야마에 건설된 5 개 포대 중 하나입니다. 미야마 포대는 후에 기탄 해협 전체로 확장된 방어 요새인 유라 요새로 정식 편입되었습니다. 유라 요새에는 이곳 미야마 외에도 기탄 해협 맞은편 끝 아와지 섬의 유라에 있는 포대와 해협 정중앙에 있는 섬들인 도모가시마섬의 포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1945 년 해체되기 전까지 미야마 제 2 포대에는 6 개의 28cm 곡사포가 있었습니다. 3 개 조로 나뉘어져서 조마다 2 개의 포좌가 설치되었습니다. 곡사포는 이곳 바로 뒤쪽 현재 호텔 자리에 있었다고 추정됩니다. 기존의 포대 중 이곳 지하 탄약고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심각한 노후화로 인하여 현재 출입할 수 없습니다.